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 - 후기 시를 중심으로

김 동 명*

차 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1. 관계론적 평등성 |
| 1. 이성선 시와 자연지향성 | 2. 유기론적 다양성 |
| 2. 심층생태주의 시학 | 3. 순환하는 생태계 |
| II.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 III. 마무리 |

국문초록

이성선 시인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생성과 성장, 소멸에 관한 주제는 자연환경이 파괴된 오늘을 살아가는 해석자와 작품 간의 상호관계적 대화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문학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성선 시에 나타나는 자연지향은 심층생태주의적 입장에서 자연을 두고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와 동일한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관계론적 평등성으로 유형화된 주제는 지구 생태계 내 개체적 존재들은 서로 하나의 전체를 향해 관련되어 있다는 방향으로 도출된다.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식물과 동물, 무기물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관계론적 평등성이 도출되는 이 시들의 공통된 주제는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생태계 내 존재들의 동등한 관계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기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시에서는 지구생태계가 지닌 복잡성으로서의 다양성이 도출된다. 지구생태계는 그 자체가 원래 생식과 성장, 생멸, 자기복원력의 의지 등 다양한 생명현상의 능력을 지닌 생명체이며, 지구생태계 내 각 개체적 생명체는 각각의 유기체로서 그들의 다양성이 모여 지구생태계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하는 생태계가 유형화된 작품들의 공통된 주제는 자연생태계의 모든 개체적 존재는 생성하고 소멸하고, 죽고 부활하는 순환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을 비롯한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무기물까지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상호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 즉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를 드러내는 작품들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비판보다는 해결방안의 형상화에 집중되어 있다. 공통적인 지향은 생태계 전체를 유기체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그 관계의 대상인 모든 인간과 자연은 각 개별적인 존재로서 동등하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심층생태주의,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

I. 들어가는 말

1. 이성선 시와 자연지향성

“자연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은 모두 하나로 꿰어진 구

슬과 같은 존재.”라고 했던 이성선¹⁾은 등단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연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시로 형상화했다. 생을 마감하기까지 30여 년간 개인 시집 13권²⁾, 시선집 1권³⁾, 공동시집 4권⁴⁾을 출간했지만 문단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이는 설악산 기슭에서 산과 물, 달과 별 등의 자연과 더불어 조용히 살았던 시인의 생활 방식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이성선의 발언과 삶을 환기해 볼 때 그가 일생을 통해 추구한 것은 자연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자연과 자신의 소통, 즉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개별 시집에 대한 서평을 비롯하여 평론이 주를 이루고 있고 더러 본격적인 학위논문도 있다⁵⁾. 자연을 주제로 다루는 점과 관련하여 주로 전통 서정시의 계승이라는 측면⁶⁾에서 논의되었

-
- 1) 이성선(1941~2001)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속초 중고등학교를 거쳐 1962년 고려대 농과대학에 진학, 1969년 ‘설악 문우회’를 결성하였다. 1970년 『문화비평』에 「시인의 병풍」외 4편을 발표하여 등단하고 1972년 『시문학』에 추천되어 재 등단한다. 그 후 20권의 시집, 시선집을 내고 2001년 5월 4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수상내역으로는 1988년 강원도 문화부(문학부분)상, 1990년 연작 장시 『산시山詩』 40편을 『현대시학』 10월호부터 12월까지 발표하여 한국시협상, 1994년 『큰 노래』로 제6회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을 결성하고 공동의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 2) 『시인의 병풍』(현대문학사, 1974), 『몸은 지상에 묶여도』(시인사, 1979), 『밭줄』(창원사, 1982),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오상사, 1985), 『별이 비치는 지붕』(전예원, 1987), 『하늘문을 두드리며』(전예원, 1987), 『별까지 가면 된다』(고려원, 1988), 『새벽 꽃향기』(문학사상사, 1989), 『향기나는 밤』(전원, 1991), 『절정의 노래』(창작과비평사, 1991), 『별레시인』(고려원, 1994), 『산시山詩』(시와시학사, 1999),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세계사, 2000),
 - 3)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미래사, 1991.
 - 4) 『샘물 속의 바다가』(문학사상사, 1987), 『시간의 샘물』(나남, 1990), 『지상에는 진눈개비 노래가』(민음사, 1992), 『별 아래 자는 시인』(문학사상사, 2001)
 - 5) 정 민, 「이성선 시의 정신 세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병금, 「이성선 시의 선적 사유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세경, 「이성선 시의 창작정신과 자아인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장영희, 「한국현대생태시의 영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6) 최동호, 「70년대 시와 서정성의 전개방향」, 『반시』, 문학세계사, 1982.

으며 우주적 원리에 입각한 인간과 우주의 본질탐구라는 관점⁷⁾, 노장사상⁸⁾, 선사상⁹⁾ 등과 관련하여 다수 거론되었다. 영성, 구도자적 정신, 또는 자유지향성, 과거지향성, ‘물’의 이미지, ‘불’의 이미지 등으로 분석한 글들¹⁰⁾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지향에 대해 초월적 주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초월적 주제를 토대로 이성선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으며 일차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확보한다. 이성선 시는 대부분 순수 서정의 자연세계를 정신주의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선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자연지향이나 우주적 원리 등 단순히 탈속의 의미에 치중하여 주제를 도출할 때 자연현상은 신비적인 상태로 인간과 동떨어져 인식되며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도외시된다는 약점을 갖게 된다.

특히 그의 후기¹¹⁾ 작품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생성과 성장, 소멸에 관한 주제는 자연환경이 파괴된 오늘을 살아가는 해석자와 작품 간의 상호 관계적 대화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문학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오탁번, 「별과 외로움의 시적 진실」, 『별까지 가면 된다』, 고려원, 1988.

이승훈, 「70년대의 한국시」,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9.

권두환, 「〈숫〉시인 이성선」, 『빈산이 져고 있다』, 미래사, 1991.

7) 남송우, 「이성선 시인의 생명 의식」, 『생명시학 터뒀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245-259쪽.

이혜원, 「산이 되어버린 사나이」,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1994. 12.

정효구, 「구도의 길, 성자의 길」,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세계사, 2000.

최동호, 「시적 풍요와 우리 시대의 나침반」, 『한국문학』, 1985.12, 308-309쪽.

8) 장영수, 「네 개의 시세계」, 『문예중앙』, 1985. 가을. 436쪽.

9) 송기환, 「큰 노래의 아름다움」, 『별레 시인』, 고려원, 1994. 63쪽.

이병금, 앞의 논문, 2004.

10) 고희진, 김기중, 김준오, 김재홍, 이경호, 정민, 조재훈 등의 논문이 있다.

11) 이성선은 1970년 등단하여 2001년 5월 작고하기까지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집을 상재했다. 시집 13권 선집 1권 가운데 생태주의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1991년부터 2001년 발표된 시를 후기 시로 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통해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생태주의의 입장이 그것이다.¹²⁾ 초기의 환경생태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는 생태계를 가리켜 인간과 동·식물이 복잡하게 얽혀 호흡하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 자체를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성선 시에 나타나는 자연친화적 주제를 심층생태주의의 관점에서 논의할 때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¹³⁾까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선의 후기 시를 대상으로 생태주의의 하위 갈래 가운데 환경생태주의나 사회생태주의, 생태페미니즘의 관점을 적용하여 주제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의 후기 시는 현실도피적 자폐성향으로 분석될¹⁴⁾ 정도로 극단적 자연지향성을 보일 뿐 아니라, 드물게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은 대부분 무위자연의 태도를 취한다.¹⁵⁾ 따라서 환경오염 자체를 비판하는 환경생태주의나 인간 사이에 형성된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자연 지배로 이어졌다는 사회생태주의, 생태페미니즘으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그의 후기 시를 심층생태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하면 한 구절도 논외로 치부할 여지가 없을 만큼 강한 밀도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기 시집에 실린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12) 생태주의는 원래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ecology)에서 유래되었다.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언어는 '집' 또는 '살기 위한 공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오이코스'(家)와 '연구'라는 의미의 '로고스'(論)를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생태학은 '삶의 장소에 관한 과학' 즉, 생물과 그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였으나 이후 각 개체와 생태계의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여러 학문에 두루 적용되었다. 송용구, 『생명과 사회』, 『녹색의 저항-독일의 생태시』, 2003. 134-134쪽.

13) 오세영, 「사회와 시의 인식」, 『현대문학』, 1983.4.

최동호, 「시적 풍요와 우리시대의 나침반」, 『한국문학』, 1985. 12. 309-310쪽.

14) 송기용, 「이성선 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07.

15) 김재홍, 「고요한 시대, 내성의 목소리들」, 『세계의 문학』, 1988. 여름.

않을 정도로 일관된 자연지향을 보인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대상으로 겸허하게 자세를 낮추고 비폭력적이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주제가 대부분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이러한 특징을 대상으로 현실을 반영한 문학적 논의를 거쳐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서의 심층생태주의를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심층생태주의가 제시하는 생명현상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거론되는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로 유형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작품 13편을 골라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 선정은 그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30년 동안 간행한 13권의 개인 시집과 시선집 1권 가운데 마지막 1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행한 4권의 시집에서 선별하기로 한다. 문학작품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때,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생태주의가 본격화되었던 시기¹⁶⁾이며 앞선 시기의 시들은 자연지향과 더불어 존재에 대한 성찰, 사회 비판, 성(性)에 관한 사색이 혼재하는 데 비해 후기 시는 일관된 자연지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후기 시에 내재된 심층생태주의를 좀더 타당성 있게 추출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16) 1990년대의 출발과 함께 '생태계 위기'를 문제삼은 것은 1990년 겨울호로 동시에 발간된 두 계간지의 특집 기획으로서 《창작과 비평》의 '생태계의 위기와 민족민주운동의 사상'과 《외국문학》의 '생태학·미래학·문학'이다. 양자 모두 당시 사회의 중심적 주제로서 생태 환경 문제가 떠올랐음을 강조하면서 문학의 생태학적 대응을 권고한다. 다만 전자가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수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문학의 생태학적 전환을 강조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1991년 11월 환경-생태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로서 《녹색평론》이 창간되었다는 점과 '생태-환경시집'이라는 부제가 달린 시집 『새들은 왜 녹색별을 떠나는가』(다산글방, 1991)의 발간도 이상의 흐름을 보여준다.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람사, 2001. 181쪽.

2. 심층생태주의 시학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생태주의 논의는 자연과학인 생물학을 비롯하여 여러 분과학문의 이론을 차용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왔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환경생태주의(Shallow Ecology)¹⁷⁾를 시발로 심층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¹⁸⁾, 생태페미니즘(Eco-feminism)¹⁹⁾의 순서로 전개되었으며. 환경생태주의는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이 파괴되는데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의 차원에서

17) ‘환경’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라는 뜻인 만큼 중심을 상정한 구심적 세계관, 원자적·단편적 세계 인식, 인간과 주변세계를 나누는 이원적 관점이 담겨 있으며 인간 외의 생명체는 배제한다.

남송우, 「생태문학론 혹은 녹색문학론의 현황과 과제」,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립사, 2001. 18쪽.

18) 사회생태론의 핵심 메시지는 현 시대의 생태 문제가 사회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복친은 이 메시지에 대한 근본 물음, 즉 생태 문제 틀과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 이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사유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데 결론은 변증법적 자연주의를 통해 녹색의 사유 체계, 생태 담론이 조금씩 형상화되고 분화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자신의 사회 생태론으로 생물 중심주의, 반인본주의, 기계론적인 자연 과학으로 전락한 영성적 기계론 등을 비판한다.

머레이 복친, 문순홍 옮김, 「자연철학을 향하여」, 『사회생태론』, 솔출판사, 1997. 59-69쪽.

19) 가부장적 서구 이원론은 여성과 자연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들의 차이로부터 위계를 만들고,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 그 개념들의 쌍은 상호대립적이고 배타적이며 그 관계는 지배-종속적이다. 즉 세계는 남성/여성, 정신/육체, 주체/대상, 자아/타자, 주인/노예, 이성/감정, 문화/자연, 문명/미개, 생산/재생산, 공적/사적, 보편/특수 등으로 대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좌측항이 우측항보다 우월하고 바랍직하고 긍정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나 구분이 아니고 좌항이 우항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도구화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세계관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고 ‘우월한’ 남성이 결핍되고 열등한 여성과 자연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된다.

Warren, Karen J. *Ecological Feminism*. London: Routledge, 1994. (정정호, 「에코페미니즘」,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7. 379쪽에서 재인용) 380-381쪽.

인간 개별의 의식개혁을 제시하는 심층생태주의의 지평이 열린 것이다.²⁰⁾

심층생태주의의 흐름을 주도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이다. 그는 그의 논문 「표피적 생태 운동과 장기적이며 심층적인 생태 운동」²¹⁾에서 인간의 삶을 위해 공기 오염이나 자원 고갈에 대해 반대하는 ‘표층생태주의(환경생태주의)’와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의 ‘근원적’ 존재 방안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심층생태주의’를 구분한다. ‘Deep’은 ‘깊이’ 생각해보는 의미를 넘어 생태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결국 인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그 해결 방안은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생물권적 평등주의, 다양성과 공생성의 원리, 반계급적 자세, 자원 고갈에 대항한 투쟁, 번잡함이 아닌 복잡성, 지방자치와 탈중앙화를 부르짖는다. 네스와 함께 심층생태주의를 주도했던 사람으로 드볼Devall, 세션Sessions, 스나이더Snyder, 그리제바하Griesebach, 아메리Amery, 포리트Porritt 등이 알려져 있다.²²⁾

20) 심층생태주의가 영감을 얻은 원천은 기독교의 성 프란치스코 이념, 하이데거 Heidegger의 철학, 알도 레오폴드 Aldo Leopold의 생태 윤리, 도교, 불교, 수렵 시대의 종교, 서구의 과정철학(헤라클레이토스Heracleitos, 화이트헤드Whitehead 그리고 스피노자Spinoza), 미국 인디언들의 문화, 서구의 낭만주의(괴테Goethe, 루소Rousseau, 블레이크Blake, 워즈워드Wordsworth, 콜리지Coleridge, 셸리 Shelley), 미국의 초월주의(에머슨Emerson, 소로우Thoreau, 화이트만Whiteman, 무어Muir), ‘비트 철학’(기스베르크Ginsberg와 스나이더Snyder), 1960년대의 반문화(와트스Watts, 라이히Reich, 로작Roszak), 사회 생태학(복친) 그리고 생태 저항(버그Berg, 다스만Dassmann 그리고 아비Abbey)을 지적한다. Sessions, “Shallow and Deep Ecology”.

Time Luke저·문순홍 편저, 『근본 생태론의 꿈』, 『생태학의 담론』, 82-83쪽.

21) Arne Naess,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 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16(1973), 95쪽 이하,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숲출판사. 1999. p.67.

22) 홍성태, 『생태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이론의 전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91쪽.

카프라는 『티닝 포인트』와 『디프 에콜로지』²³⁾의 저자로서 심층생태주의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 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을 지양하고,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를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로 확대시켜 생태계 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²⁴⁾ 그는 ‘양자론’을 연구하다가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의 망이나 그물의 한 패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²⁵⁾ 또한 문화 인류학자 베이트슨에 힘입어 정신이라는 것이 고등생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²⁶⁾ 마음의 상징 같은 것이 생태계 내 존재들에 두루 내재한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대승 불교의 골자인 실유불성(悉有佛性)²⁷⁾과 연기론(緣起論)²⁸⁾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사회와 생태계를 꿰뚫는 패러다임을 구체화했다. 지구 생태계 내 개체적 존재는 모두 하나의 그물에 걸려 있으며 창조와 소멸의 율동이 계절의 순환과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에서 나타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창조와 소멸이야말로 물질을 존재케 하는 순환의 기본 원리를 증명했다.²⁹⁾

한스 요나스는 물질이 생명을 향해서 “자기조직화함”으로써, 물질에서 생명체로의 이행이 일어났다는 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는 “유기체적인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조직 속에서도 이미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신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단계에 이르러도 역시 유기체적인 것의

23) 카프라, 카렌마흐 공저, 『Deep Ecology』, 1982.(신동춘, 「디프 에콜로지의 이해」, 『시문학』, 시문학사, 1999. 88-91쪽.

24) 김용민, 「대안 사회를 위한 꿈」, 『생태문학』, 책세상, 2003. 66쪽.

25) F. 카프라, 이성범, 구윤서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부, 1985. 292쪽.

26) Gregory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1972. (박대식 역, 마음의 생태학, 책세상, 2000.

27)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란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28)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29) F. 카프라 지음·이성범, 구윤서 옮김, 앞의 책. 313-314쪽.

한 부분으로 남는다”고 하여 물질을 생명으로 진화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고, 생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속성을 잠재적으로 지닌 것으로 본다.³⁰⁾ 이 논의는 생물계와 무생물계의 관계론적 평등성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러브록은 지구생태계를 가이아로 명명하고 모든 지상의 생물들에게 적합하도록 주변 환경 조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생물조직체와 같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지구생태계는 인간의 오장육부와 사지에 해당하는 핵심기관과 부수적 기관을 가지며, 이러한 기관들은 필요에 따라서 신축과 생성·소멸이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한다. 또한, 주변 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될 때는 자기 제어 시스템을 운용하여 조절한다고 본다.³¹⁾ 지구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생물조직체로 본다는 점에서 관계론, 유기론의 발견과 함께 생태계에 무기물을 포함시킨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 물리학자 게리 주커브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이 세계에 객관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가 자연을 연구할 때 자연이 스스로를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³²⁾고 발언한다. 이 말은 인간이 곧 자연이라는 의미로 장자의 무위자연³³⁾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이상학적인 장자의 무위자연설이 물리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의와 함께 주커브의 이론과 장자의 무위자연설은 자연생태계 문제에 대한 대안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의 이론적 기반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서구의 기계론적 사고방식을 떠나서 지구생태계 내의 개체적 존재를 유기론적 입장에서

30) Hans Jonas,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und metaphysische Vermutungen* (Frankfurt : Suhrkamp, 1994), p.248. 남송우, 앞의 책, 15쪽.

31) James E. Lovelock, *Gaia* 『가이아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1978.』, 홍욱희 역, 범양사, 1990. p.17. 202-223쪽.

32) Gary Zukav, *The Dancing Wu Li Masters: An Overview of the New Physics* (New York: Bantam, 1980), p.28, 30-31쪽.

33) 장자·최효선 역해, 「내편-제물론」, 『장자』, 고려원, 1994. 33-76쪽.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들의 요점은 전체의 성질이 부분의 귀납적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내재한다는 인식이 ‘근원성’에 주목하는 심층생태주의적 사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들을 정리하면, 무기물까지 포함한 지구생태계 내 개체적 존재의 가치는 동등하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체적 존재들은 다양성을 유지한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구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체적 생명체의 독립적인 순환과 개체적 생명체끼리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구생태계의 생명현상이 발현된다고 본다. 따라서 심층생태주의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관계론적 평등성과 유기론적 다양성이 확보된 가운데 지구생태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며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성, 즉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성은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생태주의에서 포착한 생명현상의 대표적 원리이자 대안의 ‘근원적’ 가치관인 셈이다. 이성선의 후기 시 대부분에서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근원적 탐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지향성이 집중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심층생태주의에서 지향하는 근원적인 존재방안의 모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성선의 후기 시에 나타나는 심층생태주의를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로 유형화하여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관계론적 평등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이성선 시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1. 관계론적 평등성

주지하다시피 관계론적 평등성은 생태계의 모든 실체들이 상호 연관

된 전체의 한 부분이며 본래적인 가치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간이 곧 자연이며 자연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인간이라는 원칙을 긍정적으로 포용한다.³⁴⁾ 아래 시 「아름다운 사람」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허공에 팔을 들고/춥불인 듯 지상을 밝혀준다./땅 속 깊이 발을 묻고
하늘 구석을 쓸고 있다.//머리엔 바람을 이고 별을 이고/악기가 되어온
다.//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듯/나무도 나를 바라보고 아름다워할까/나이
먹을수록 가슴에/깊은 영혼의 강물이 빛나/머리 숙여질까//나무처럼 아
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나무처럼 외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혼
자 있어도 놀이 찾아와 빛내주고/새들이 품속을 드나들며 집을 짓고/영
원의 길을 놓는다./바람이 와서 별이 와서 함께 밤을 지낸다.//

- 「아름다운 사람」³⁵⁾전문

위 시에서 화자는 ‘나무’를 ‘사람’이라 지칭한다. 이는 다른 생물들과 인간의 가치를 수평적 차원에 둬으로써 심층생태주의의 사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심층생태주의에서 관계론을 내세울 때 원칙상 생물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각각의 종들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 동등하며 서로가 서로의 삶에 바탕이 된다는 이해가 깔려 있다.

위 시의 화자가 나무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늘 하늘빛에 젖어서” “지상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나뭇잎의 푸른 빛깔과 하늘색은 매우 비슷하다. 추상적인 특성을 두고 색깔로 규정하며 주로 본질을 의미한다고 할 때 나무는 하늘을 닮아 지상을 밝혀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각각은 모두 “하나로 꿰어진 구슬과 같은 존재”라는 심층생태주의의 사유를 환기해 본다면 다른 존재의 발현을 도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는 나

34) Time Luke저·문순홍 편저, 「근본 생태론의 꿈」, 『생태학의 담론』, 90-91쪽.

35)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미래사, 1991. 64쪽.

무, 즉 식물계야말로 존재 자체가 바로 관계정립에 기여하는 실천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 시의 시적 화자가 판단할 때 지상의 낮이 밝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불어오고 별이 빛나는 이유도 아름다운 사람인 나무가 “땅 속 깊이 발을 묻고 하늘”을 쓸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오고 해가 지고 밤이 오는 자연의 운행, 즉 생태계의 살림은 나무로 표상되는 식물계의 생명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상징적 표현인 것이다. 식물적 이미지는 생명체의 고향과 함께 생명을 죽이는 기계적 이미지에 맞서는 의미로서 생태주의 상상력의 한 갈래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³⁶⁾ 이는 기계로 상징되는 문명이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데 비해 식물이 각 개체적 생명체의 소통, 즉 생명현상에 절대적으로 관계한다는 의미를 보낸다.

“내가 저 나무를 바라보듯/나무도 나를 바라보고 아름다워 할까”에서 식물계와 인간의 소통에 대한 구체적 현상이 환기된다. 녹색 식물, 즉 자연은 광합성에 의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산하며, 동물과 사람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자연의 일부이자 전체로서 동시에 호흡할 때 각 개체의 생명활동 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의 생명현상이 가능한 것이다. “놀이 찾아와 빛내주고/새들이 품속을 드나들며 집을 짓고/영원의 길을 놓”자 “바람이 와서 별이 와서 함께 밤을 지”새듯 우주현상 전체가 서로 관계되어야 조화로운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위 시에서 화자는 자연 생태계 내 모든 생명체가 생명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식물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흙길 위에 난 우차 바퀴 자국//갈게 마을로 향하/두 줄기 길//그 사이
더욱 깊이 파인/발자국 소 발자국//그 속에 나의 얼굴이/소의 얼굴과 나

36) “비생명적 이미지로 작용하는 광물적, 기계적 이미지와 맞서는 자리에 놓이는 식물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는 시들을 통해서 생명시학은 수립될 수 있다”
남송우, 『생명시학을 위하여』, 『생명과 정신의 시학』, 도서출판 전망, 1996. 90쪽.

란히/떠오르는 날이 있다.//비 온 다음날이다./가장 맑은 날이다.//시멘트 포장하다 남은 길/땅바닥에 가끔 비치는//나의 얼굴과 소.

- 「얼굴」전문³⁷⁾

달빛이/산길을 쓸자/넷물처럼/길이 산 위에 뒀다//너구리 까투리 고라니 산땀 찾는 들쥐들/발가락에 달빛 묻어//어떤 발자국 줄은 산 위에서 별 쪽으로 사라지고/다른 줄은 마을로 내려오고//또 한 줄은/내 잠속으로 숨어들어/꿈의 세상에 발자국을 찍었다//내 뺨골 속에 흩어져 달빛으로 찍힌/작은 하늘 흔적들//

- 「달빛 발자국」전문³⁸⁾

위 시 「얼굴」이나 「달빛 발자국」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인간과 계층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고 고등동물이라 일컬어진다. 인간 외의 동물은 생물학적 경로만 따르다가 생명을 마치게 되니, 굳이 사물과 달리 규정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결과 인간을 위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계로 부화시키고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 인공 사료를 먹이는 등 인간을 위한 식용이나 노동력의 수단, 즉 사물로 보는데 일말의 의혹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 시 「얼굴」에서는 동물 가운데 가축인 소를 대상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론적 평등성이 형상화되어 있다. “길게 마을로 향한/두 줄기 길// 그 사이 더욱 깊이 파인/발자국 소 발자국”은 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농부의 삶을 통해 지구 생태계 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화자인 농부는 가축인 소를 인간과 조금도 다르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나란히 걷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두 줄기 길”은 그야말로 동등한 가운데 상보적 관계임을 추측하게 한다. 나아가 “나의 얼굴이/소의 얼굴과 나란히/떠오르는 날”이 “가장 맑은 날”에서는 인간이 “소”로

37) 이성선, 『별레시인』, 고려원, 1994. 49쪽.

38) 이성선, 『산시山詩』, 시와시학사, 1999. 70쪽.

상징된 동물과 동반자적 삶을 지향할 때 충만한 존재실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건질 수 있다.

한편, 「달빛 발자국」에서는 조금의 경계도 없이 동일성을 이루는 야생 동물과 인간의 행복한 관계가 포착된다. “너구리 까투리 고라니 산뱀 찾는 들쥐들/발가락에 달빛 묻어//어떤 발자국 줄은 산 위에서 별 쪽으로 사라지고/다른 줄은 마을로 내려오고//또 한 줄은/내 잠 속으로 숨어”든다는 구절에서는 생태계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끼리의 이상적 상황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 동물을 제외시킨다면 고독한 인간의 실재가 연상되며, 실제 생태계 내에 야생동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 또한 생명체로서의 온전한 자아실현을 하기 힘들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³⁹⁾

이슬 누더기 덮고 자는 새벽강//여름날 아침 농부가 그 속에서/어깨에 삼을 메고 나오고//저녁에 달이 빠져/막노동꾼도 개도 망초꽃도/독길을 따라가고//삿갓 쓴 산과 키 큰 풀들이내려가 섰다. 거꾸로//늦게 돌아오던 스님도 그녀 품속에 들어가 /자다가 떠나는 곳//새벽에 더 깨끗이 눈뜨는 여자//

- 「강물 속의 여인숙」전문⁴⁰⁾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고 세상을 건너갈 수는 없을까. 요즈음은 이것이 내 작은 꿈의 하나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욕심인가. 구름은 이런 생각 없이도 밝으면 산이 깨끗해지고 풀과 나무와 사람이 맑아진다. 그 길의 비결은 무엇일까.

- 『산시山詩』 「자서」⁴¹⁾전문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인격체로 파악하고 인간생활을 자연법칙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성을 내 세

39) 탄소동화작용을 도우는 인자, 생태계 먹이사슬로서의 역할, 정서적 유대감 등

40) 이성선,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64쪽.

41) 이성선, 『산시山詩』, 시와시학사, 1999. 앞 쪽.

운다. 이러한 논의의 범주는 생물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생물체끼리만 소통해서는 극히 미약한 생명현상도 진행되지 못한다. 동물과 식물의 동시적인 호흡, 즉 탄소동화작용도 수분과 햇빛을 비롯한 무기물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위 시 「강물 속의 여인숙」에서 화자는 무기물인 강 또한 인격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원래 강은 이 세상을 비유하게 하는 물질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시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간다는 측면에서 여성, 즉 어머니와 동일하게 인식하며, 다른 존재들의 생명활동을 돕는 구체적 대상으로 그려진다. “막노동꾼, 개, 망초꽃”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대표성으로 읽힌다. 따라서 무기물질인 강물은 생명체인 식물과 동물, 인간을 품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체의 모성적 존재로 표상되며, 이를 확대 해석하면 무생물계야말로 생태계의 생명현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주제는 인간의 과도한 소비욕망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무기물의 관계론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관계에서 특정 존재의 욕망이 과도하게 충족되어서는 온전한 관계 확립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대량 생산구조가 이끌어가는 현대의 생활방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갈수록 편리함과 크기를 선호하도록 부추긴다. 따라서 인간이 물질의 소비를 통해 욕망을 충족시키는 만큼 자연으로서의 무기물은 고갈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심층생태주의의 실천은 생태계 내 다양한 존재들 모두가 고유체 가치를 발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자연 생태계 내의 모든 개체적 생명체는 제 각각 생명현상을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생태계 전체가 관계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적 생명체는 스스로 하는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삶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⁴²⁾ 각자 부피를 줄이고 가난한 삶을 실

천해야 하는 당위가 성립된다.

위 시 “강물 속의 여인숙”은 그러한 이상이 실현된 생태계의 비유로 볼 수 있다. 자연생태계를 상징하는 “강물 속의 여인숙”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물의 “누더기”로 표현되는 이슬은 물의 최소 단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자신이 존재했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덧붙는다. “개, 망초꽃들” 또한 동물과 식물 가운데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농부와 막노동꾼’은 최소한으로 소비했던 에너지조차 자연 생태계에 노동력으로 되돌리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건질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시인 자신의 후기 시집 『산시山詩』 「자서」에 실린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고 세상을 건너 갈 수는 없을까. 요즈음은 이것이 내 작은 꿈”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위 시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특정 개체, 즉 인간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면 무기물과의 관계에서 평등성이 무너지며 관계가 훼손됨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개체적 생명체 가운데 무기물계를 훼손하는 주요 인자인 인간 스스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새벽에 더 깨끗이 눈뜨는 여자”로서의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시의 소재를 통해 드러나는 가난한 삶의 방식⁴³⁾은 개체적 존재인 인간이 관계론적 평등성을 지향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근원적 방안이 된다.

42)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Frankfurt), 1979. p.36.

43) “인구의 대규모 감소가 없으면, 인간의 삶과 문화의 변형은 없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변형도 인구수가 줄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 (“Devall, B. & Sessions, *IBid*, p.70.)는 말에는 지구생태계 내 다른 생명체들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만 사용하는 데 비해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유기론적 다양성

지구생태계의 혼돈은 만물의 시원인 무소박자연 등에 비유된다.⁴⁴⁾ 질서·우주를 의미하는 코스모스가 무질서·혼돈을 의미하는 카오스로부터 생성되어 왔다는 말은 동서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이야기이다. 혼돈, 즉 다양성을 지닌 지구생태계는 이미 그 자체로써 완전히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층생태주의자들이 원시의 세계로 돌아감으로써 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성선 시에서는 생식과 성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갖춘 모성적 존재로서의 생태계, 유기론적 다양성을 갖추었기에 발현되는 자기복원력, 다양성이 조화된 유기체로서의 생태계를 살필 수 있다.

아침에 문득 깨어나 바라보니/이 세상은 갑자기/하나의 신비로운 자궁 안에네./이상하여라, 우주 전체가/나를 둘러싸고 떠 있는 큰 자궁이네./숲의 등지에서/막 깨어난 새 새끼처럼/놀라운 눈으로 나는 고개를 쳐들고/세상을 내다보며 가우뚱이네./하늘에는 아름답게 떠 있는 양수/지상엔 반짝이는 이파리/온갖 형상을 만지는 공기의 부드러운 눈빛/이 모두가 나를 향해/풀비늘 반짝이며 밀려오네./나무에 걸린 구름과 햇살/밤에 빛나는 성진의 무리들이/내 핏줄을 타고 내려와/숨결을 이루네./이 자궁 속에서 깨어난 나는/새로운 가슴으로 날개를 펴네./아,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날개를 울리는 하늘 북소리.///

- 이성선, 「자궁 안에서」전문⁴⁵⁾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햇살이 번지고/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나의 얼굴이 들어 있다./늘 홀로이던 내가/그들과 함께 있다./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모두가 아름답다

- 「논두렁에 서서」부분⁴⁶⁾

44) 최효선 역해, 「내편-웅제왕」, 『莊子』, 고려원, 1994. 131쪽.

45)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40쪽.

46)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22쪽.

위 시 「자궁 안에서」는 지구생태계를 가리켜 완전한 생태계라는 의미에서 자궁으로 은유한다. 자궁이라는 말과 모성이라는 말은 생명탄생과 성장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보면 등가관계에 놓인다. 위 시의 자궁이라는 말에는 모성이라는 의미가 덧붙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궁, 모성 안에서 발아하여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생명체로 탄생하며 성장한다.

화자는 “아침에 문득 깨어나”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비로운 자궁”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힌다. 이는 자연을 비롯한 우주가 바로 자궁이자 모성이고 인간을 비롯한 개체적 생명체는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자녀’라는 의미망을 확보한다. 화자는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이파리”와 “공기의 부드러운 눈빛”, 즉 자연현상을 지구생태계로부터 전해지는 생명줄로 파악한 것이다. “나무에 걸린 구름과 햇살” “밤에 빛나는 성진의 무리들”도 화자의 “핏줄을 타고”와 “숨결을 이”루는 생명수에 다름 아니다. 화자는 인위가 없이 생성되어 있는 카오스 상태의 우주는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모성과 동일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논두렁에 서서」에서 “고인 물” 또한 생태계를 상징하며 동시에 모성으로서 자궁의 의미를 갖는다. ‘고인 물’이 모성으로서의 자궁이라면 홀로이던 화자가 고인 물 안에서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위 시에서 ‘나뭇가지’는 식물, ‘햇살’은 무기물로서 자연현상, ‘새’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면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과 “새 그림자”와 “나의 얼굴”이 비쳐 “모두가 아름답다”는 표현은 결국 인간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어울릴 때 조화로운 유기체로서의 생태계가 완성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연을 이리저리 바꾸거나 없애고 보태는 행위에 앞서 지구생태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셈이다. 심층생태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친 인위로 파괴되어가는 작금의 문체는 인간의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불신, 그리고 생

태계와 인간 스스로의 관계 파악에 실패한 결과이다. 위기에 처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와해된 관계를 바로 잡아 자연과 인간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 지구생태계에 대한 자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영사 오를 때//맑고 좁다랗게 잘 다듬어진 마사토 길//비 지나가고
땅 신성하고/길바닥에 드문드문 아이 눈동자처럼/지나가는 차에 파이어
고인 물//산그림자 소나무 향기 그 속에 작게 산다//가끔 지나가는 승용
차가/그 눈동자를 밟자/산이 깨지고 나무 흩어져 지워진다//조금 있다
다음 차 지나자/또 부서지고 새로 제 모습 나타난다//발 밑에서 부서지
고 세워지고 사라졌다 돌아오는/그 길을 스님 한 분이 앞서간다//나도
따라간다/절은 그 속에 있다//

- 「불영사 길」전문⁴⁷⁾

시골 길에/비 온 뒤 물이 고이고/물 속에/산이 들고//산 속에 꽃이/봄
계 피고/꽃 속 절간에/동자승이/숨어서 웃고//

- 「시골길」전문⁴⁸⁾

지구생태계를 의미하는 ‘가이아Gaia’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대지의 여신’을 칭한 말이다. 여성으로서 생명을 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 영국의 화학자 리브록은 가이아의 속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생태계 내 개체적 존재들에게 적합하도록 생태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생물체와 같이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닐 뿐만 아니라 사지와 같이 부수적 기관을 가진다. 이들은 필요할 때 신축과 생성·소멸이 가능하며 장소에 따라 역할을 달리 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스스로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⁴⁹⁾

47) 이성선,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43쪽.

48) 이성선, 『산시山詩』 60쪽.

49) James E. Lovelock, *Gaia* 『가이아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1978.』, 홍욱희 역, 범양사, 1990. p.17. 202-223쪽.

이러한 가이아론을 적용한다면 위 시 「불영사 길」에서 지구 생태계의 자기조절력과 자기복원력에 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시의 소재인 “마사토50)”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스팔트가 아닌 자연의 암석으로 자연 생태계를 상징한다. “가끔 지나가는 승용차가/그 눈동자를 밟자/산이 깨지고 나무 흩어져 지워진다”는 구절은 문명을 상징하는 승용차가 자연의 생명력을 손상시킬 때 자연의 일부가 훼손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있다 다음 차 지나자/또 부서지고 새로 제 모습 나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지구생태계의 자체 회복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구생태계는 인위에 의해 일부가 파괴된 부조화 상태도 스스로의 면역력, 즉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을 스님 한 분이 앞서”는 구절에서는 향후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자연생태계가 지닌 자기조절력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터닝 포인트’의 저자 카프라가 ‘양자론’을 연구하다가 ‘디프 에콜로지’로 귀결한 이유가 인간은 전체 우주에서 하나의 먼지, 그물코와 같다고 보는 연기설⁵¹⁾을 수용했기 때문이며,⁵²⁾ 야성의 실천을 강조한 시인 게리 스나이더를 비롯한 다수의 심층생태주의자들이 불교사상을 받아들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⁵³⁾

그렇다면 “불영사”, “스님”, “절은 그 속에 있다”나 “동자승”은 불교를

50)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흙, 화강토라고도 불린다.

51) 연기설에 의하면 모든 법은 우연히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고 필연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상호관련 속에서 생멸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상호관련 속에서 일어나므로 독자성을 지니지 못하며, 무상한 법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멸만이 있을 뿐이다.

남송우, 「종교적 차원의 생명관」, 『생명시학 터뒀기』. 35-40쪽.

52) 신동춘, 앞의 책. 88-91쪽.

53) 고영섭,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연기사, 2001. ; 김중욱, 『불교생태철학』, 동국대 출판부, 2004.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생태계 내 생명체 가운데 지구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인간이 심층생태주의에서 제시하는 유기론적 다양성을 추동하는 존재, 즉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치관을 지향하는 존재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할 때 손상된 자연생태계라 하더라도 태초의 상태로 회복⁵⁴⁾하여, “비 온 뒤 물이 고이고/물 속에/산이 들고//산 속에 꽃이/붉게 피고/꽃 속 절간에/동자승이/숨어서 웃”는 ‘시골길’, 즉 마사토와 같이 유기론적 다양성을 지닌 생명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우족처럼은 아니지만/어릴 때 들길을 걸으면서 알았다/내 영혼은 바람이 주셨다는 것을/지금도 걸으면서 느낀다/내 눈동자 속의 눈동자에서는/그 분과 하나다/나는 이것을 그치지 않고/노래하기를 열망한다/새벽 풀잎에 별이 흐를 때/나의 귀는 듣는다/밭고랑 감자가 냇물에게 들려주는 노래/메꽃 속에 늦잠 자는/벌레의 잠꼬대 소리/바람은 이들로 향기롭다/이들은 내게 와서/들판으로부터 나를 키웠다/수우족처럼은 아니지만/나는 알았다/그리고 지금도 안다/아름다운 것은 단순하고 작다/수우족이 그렇게 살고/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 「바람의 노래」전문⁵⁵⁾

풀잎을 밟으면/밭에 향기가 묻어 난다./짐승의 발 벌레의 발은 깨끗하다./대지는 사람을 기다린다./날카로운 쟁깃날로 흙을 파헤치고/뜨거운 그 심장을 힘껏 움켜쥐는/손을 기다린다./경운기가 작은 심장을 통통거리며/자세를 바짝 낮추고/깊이깊이 그를 갈아갈 때/마음은 한없이 뻗는다./씨를 던지고 생명을 던져 주어/전체 몸을 키우는/큰 사랑의 목마름/노래 없는 대지는 죽은 자다./논은 흰구름 두둥실 뜬 논물로/농부의 맨발을 씻어 주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 「대지의 노래」전문⁵⁶⁾

54)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인류가 올바른 도덕 의식을 획득함으로써 그리고 원시 사회로 설정된 사례들로 되돌아감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5) 이성선,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65쪽.

56) 이성선, 『벌레시인』, 57쪽.

「바람의 노래」에서 화자는 “새벽 풀잎에 별이 흐를 때” “밭고랑 감자가 냇물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메꽃 속에 늦잠 자는/벌레”가 잠꼬대하는 소리를 듣는다. 생태계의 운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식물과 무기물, 식물과 벌레가 서로 소통하는 기호를 체득했다는 것이다. 무기물인 바람 또한 영성이 깃든 자연현상으로 화자를 비롯한 생명체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니, 모든 생명체들이 어울림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발현한다. 이는 생태계의 개체적 존재 모두에 영성이 깃들어 있다⁵⁷⁾는 의미와 함께 인간과 동식물 뿐 아니라 무기물까지 하나로 어울린 우주현상으로서의 조화로운 자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심층생태주의에서 인간이 자신을 재발견하는 일은 자연의 실체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즉 자연과 인간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을 의미한다. 지구생태계의 유기체적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의 생명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자는 “잎 떨어진 나무에 귀를 대는 조각달처럼”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들을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을 대할 때 이용하기 위한 간섭이나 조작을 하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고 자연을 향해 더욱 열려 있기를 바라는 비유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을 착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침묵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화자는 “나는 이것을 그치지 않고/노래하기를 열망한다”고 발화한다. 화자 자신 또한 자연이며, 이를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 즉 인간과 자연의 영속적인 합일을 간구하는 것이다. 심층생태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개체적 존재의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연생태계와 합일함으로

57) “모든 수준의 생물과 - 식물, 동물, 인간 - 무기물인 그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인지적·정신적인 상호작용이 된다. 따라서 생명과 무기물의 인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음은 - 정신적 과정 - 생명과 모든 수준의 물질 속에 내재하고 있다”

이우봉, 「새로운 환경관」, 경상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학과 생태학』 백의. 2001. 96쪽.

써 실현될 수 있다. “지금도 안다/아름다운 것은 단순하고 작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시인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연과의 유기체적 의식에 따르는 감수성을 지닐 것을 회구하는 것이다.

「대지의 노래」에서도 ‘논, 물, 구름, 벌레, 풀잎, 짐승, 농부들’, 심지어 사물인 “쟁깃날”까지 각 개체가 서로 교응하여 조화로운 생태계의 풍경이 연출된다. 농부는 논을 갈아 생명인 “씨”를 심어주고 논은 농부의 쟁깃날이 뜨거운 심장, 즉 “흙”을 움켜잡아 주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생명 현상은 “논물” 또한 “농부의 맨발을 씻어 주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에서 절정을 이룬다. 개체적 존재의 진정한 자아실현은 생태계 전체와 동일성을 이룰 때 완성된다는 의미의 시적 형상화인 것이다.

3. 순환하는 생태계

카프라는 계절의 순환과 생태계 내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에서 창조와 소멸의 율동을 찾아낸다. 나아가 창조와 소멸이야말로 물질을 존재케 하는 근본이 됨을 인식한다. 또한 무기물의 구성 요소들 간에도 방출과 흡수를 통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발견한다.⁵⁸⁾ 카프라는 생태계의 개체적 존재 모두가 서로 관련된 가운데 순환한다는 현상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성선 시에서는 살아 있는 생태계 내 존재끼리의 순환과 섭식의 순환, 생성과 사멸의 순환을 엿볼 수 있다.

어떤 힘이 물을 바다로 이끈다./보이지 않는 어떤 손짓이/풀잎 안의 수액을 방울방울 밀어 올린다./사람의 길은 지상에 있지만/물의 길은 하늘에 있다./물에는 벌과 나무와 구름과 사람의 그림자/우리 모두는 물길에 실려 그런 속삭임으로/흐른다. 흐르며/은밀히 서로를 숨쉬고 눈짓하

58) F. 카프라 지음·이성범, 구윤서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부, 1985. 313-314쪽.

고 지절거리다./풀잎 안의 물방울처럼/우리 얼굴을 허공으로 떠올린다./달 뜨는 밤처럼/우리 혼은 허공에 실려 있다./들꽃들은 기억의 눈동자로 들판에 앉아 기다리고/꽃 사이를 거니는 신성한 이가/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산다./이 들판은 우리 아버지의 귀가 묻혀/아버지의 눈동자가 묻혀/아버지의 아버지의 뼈가 묻혀/소나무 위/비껴 떠 하프를 치는 구름을 듣는다.

- 이성선, 「물길」부분⁵⁹⁾

베다를 비롯한 많은 문헌에서 물은 가장 원초적인 모성을 상징하며, 여러 경우에서 모든 생명은 물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된다.⁶⁰⁾ 물은 생명의 기원일 뿐 아니라 물을 흡수하고 발산하는 순환의 모든 과정을 통해 생명현상에 관여하며 물을 순환시키지 못하면서 모든 생명체는 사멸하게 된다. 지구라는 땅 덩어리와 모든 생명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몸 역시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물은 물질의 생성이란 차원을 넘어 생명체의 탄생과 신진 대사, 생명체끼리의 공생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아 영성이 깃들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위 시 「물길」에서 물의 이미지는 각 생명체들을 연결하여 전체 생태계의 생명현상에 참여하도록 이끈다는 의미가 강조된다. 물이 강을 거쳐 “바다로 생명을 이” 끌고, 또 “풀잎 안의 수액을 방울방울 밀어 올린다”. 뿐만 아니라 “별과 나무와 구름과 사람의 그림자”가 물에 비치고, 그 “물길에 실려” “서로를 숨 쉬고 눈짓하고 지절”거리니 각 개체적 생명체는 물을 매개로 서로가 교감하며 생명을 감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물의 순환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물의 흐름을 따라 전체가 하나 되어 순환한다.

낮에는 “들꽃들”이 “기억의 눈동자로 들판에 앉아 기다리고” “꽃 사이

59) 이성선, 『별레시인』, 고려원, 1994. 60쪽.

60) 이승훈, 『문학상정사전』, 고려원, 1996. 175쪽.

를 거니는 신성한 이가/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구절에서도 물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생명현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찮은 “들꽃”도 발아부터 물이 관여할 뿐 아니라 계속적인 물의 흡수와 발산으로 성장하며 물의 순환이 정지하면서 사멸한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생명체든 생명 있는 곳에 물의 순환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들판”에 “우리 아버지의 귀가 묻혀/아버지의 눈동자가 묻혀/아버지의 아버지의 뼈가 묻혀/소나무 위/비껴 떠 하프를 치는” 구절에서는 이미 죽어 땅에 묻힌 겹겹의 주검까지도 지상에서 대기로, 대기 중에서 지상으로 돌고 도는 물의 순환에 얽여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⁶¹⁾

위 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의 순환에는 반드시 무기물질인 물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물 뿐 아니라, 공기와 흙과 바람을 포괄하는 무생물 전체에 영성,⁶²⁾ 즉 생명력이 깃들여 있으며, 이 모두가 생명현상에 동참한다는 의미의 확대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생물체의 주검은 무생물이 되고, 무생물의 개입으로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진행되니 자연생태계의 생명현상 자체가 생명체와 무생물계가 자리를 바꾸는 순환이며 물이 이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개울물을 건너는 아침/징검다리에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문득 물에
몸 비치고 서 있는/나무 한 그루를 마신다./聖人을 먹는다./물에 떠내려
오는 황소를 먹는다./초가집 한 채도 먹는다./물살에 비치는 호롱불빛/

61) “물은 증발하여 구름으로 응축되며, 생명을 부여하는 비의 형태로 다시 지상으로 돌아온다. 이때 물은 물이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2중의 덕목을 소유한다. (...)이런 과정이 암시하는 것은 우주만물이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이라는 것이다.” 이승훈, 앞의 책. 178쪽.

62) “물질은 가장 낮은 단계의 조직 속에서도 이미 정신적인 것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신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단계에 이르러도 역시 물질의 한 부분으로 남는다”는 말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Hans Jonas,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und metaphysische Vermutungen* (Frankfurt : Suhrkamp, 1994), p.248.

여물 썬는 소리/천도복숭아 가지에 매달린 아이들/감자꽃 사이에서 웃고 있는 할아버지/靈穴寺에서 막 문 열고 나오는/스님도 하나 먹는다./ 먹고 그냥 앉아서/두 다리 사이로 얼굴을 디밀고/거꾸로 바라본다./거울 처럼 반짝이는 세상/내 안일까 밖일까/저 아래/염소 한 마리가 또 독에서 내려와/궁둥이를 하늘로 뻗치고/물을 마시고 있다./나를 먹는 모양이다.///

- 「물을 건너다가」전문⁶³⁾

한 생명체의 실존에 대해 통찰할 때 먹이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된다. 무릇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먹고 먹히는 행위나 상황은 생태계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생존의 법칙이자 현상인 셈이다. 만약 먹히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상황을 중단시킨다면 생태계의 흐름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인간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포획하고 생산하더라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먹는 것과 먹히는 것의 적절한 균형은 자연생태계의 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 시 「물을 건너다가」는 자연 생태계 내 존재들끼리 얽혀 진행되는 먹이와 먹잇감의 순환에 대한 시인의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개울물”이다. 화자는 아침에 “개울물”의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을 마시”게 된 것이다. 물을 마시면서 “문득 물에 몸 비치고 서 있는/나무 한 그루를 마”시고 있다는 상상을 하며 물에 비치는 모든 것을 화자 자신이 먹는다는 생각을 한다. 끝에는 염소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것을 두고 “나를 먹는 모양”이라고 인식한다. 모두가 비치며 모두가 마시게 되는 개울물에서 생태계 내 먹이 사슬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개울물 안에 먹히는 존재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심층생태주의의

63)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24쪽.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나무 한 그루, 聖人, 황소, 초가집 한 채, 호롱불빛, 여물 썬는 소리, 아이들, 할아버지, 스님, 나를 먹는 염소”로 식물과 동물, 무기물과 소리들로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상에서는 심층생태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생의 원리가 순환을 통해 발견된다. 이 시의 주제로 파악되는 섭식이란 개념은 죽이고 착취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공존하고 협력하는 행위, 즉 순환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를 먹는 모양”이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순환하는 생태계에 자신의 섭식을 관련시킨다. 생태계의 먹히고 먹는 행위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 연속성 안에 스스로 없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위 시에서는 세상 모든 생명체를 먹고 먹히는 순환의 연합체로 파악하는 동시에 순환 그 자체가 생명활동이 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서로가 먹고 먹히는 관계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의 살아있는 전체, 지구생태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 누운/낙엽의 저 따뜻함./팔 벌려 오히려 넓게
/세상을 껴안았구나./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너는 부분이였다./그러나
떨어져 전체로 돌아가는 길/아니 너는 이미 전체가 되었다./하늘을 이불
로 땅을 요로/해와 달이 등불이요 별이 지붕이다./너에게는 길이 따로
없다./부서지고 밟히고/흩어져 무로 돌아가는 것/다시 기름이 되는 것./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들에/몸의 습기 다 되돌려 주고/맑은 몸으로 입산
하는구나./너는 어제의 너가 아니다./내 다시 한 하늘로/달 뜨는 방향의
허공으로도/너를 말할 수 없구나.///

- 「입산」전문⁶⁴⁾

인간은 만물의 중심이라는 우월감과 삶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모든 것

64) 이성선, 『별레시인』, 75쪽.

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죽음마저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얼마간 생명연장에 성공하기도 했다. 나아가 인간은 생명복제와 생명탄생, 생명체의 사멸에까지 자신들의 의지를 개입시킨다. 이렇게 자연의 원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개입이 지속되면 생태계의 자체 생명력, 즉 자연과 각 개체적 생명 간의 자연스런 소통 경로가 혼란스러워지고 순환의 체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⁶⁵⁾

위 시 「입산」에서 화자는 사멸을 생명현상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 누운/낙엽의 저 따뜻함./팔 벌려 오히려 넓게/세상을 껴안았구나./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너는 부분이였다./그러나 떨어져 전체로 돌아가는 길/너는 이미 전체가 되었다.”는 사멸 또한 생명현상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사멸을 전체 속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 다시 탄생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인식하는 것이다.

생명체의 사멸 또한 생명현상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인식을 전체 생태계의 문제로 확대시키면 무기물질의 존재 이유를 좀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낙엽을 일러 “홀어져 무로 돌아가는 것/다시 기름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기물질 또한 한 때 생명체였으며 무기물질이 됨으로써 전체생태계에 온전히 결합하여 새로운 순환의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바탕이 된다는 의미를 더한다.⁶⁶⁾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유기체적 생명체와 비유기체적 물질은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분화 발전해가며, 그 과정이 바로 생명현상인 것이다.⁶⁷⁾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원리를 도외시한 채 생명현상을 표면적으

65) F. 카프라, 이성범·구윤서 옮김, 앞의 책, 273쪽.

66) 정순진, 「순환의 질서를 위하여」, 『녹색평론』, 1998. 7~8월호, 75쪽.

67) 이진우, 「자연의 자유, 인간의 필연」, 『녹색 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66. 191쪽.

로 받아들인다. 표면적이고도 이분법적 인식으로 살아 있는 것은 생명이 있고 사멸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라 여기니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순환은 물론이고 지구생태계의 순환 또한 느려지다 못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삶과 죽음을 이분법으로 갈라 구분하는 인간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삶과 죽음의 반복하는 순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본다. 심층생태주의에서 제시하는 순환성에 입각해 본다면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생명현상의 짝인 것이다.⁶⁸⁾

Ⅲ. 마무리

이상으로 이성선 시에 나타나는 심층생태주의를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관계론적 평등성으로 유형화된 주제는 식물계, 동물계, 무기물계로 나뉘어 분석되며, 그 결과 자연 생태계 내 존재들은 서로 관계되어 하나의 전체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도출된다. 식물계 따로 생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동물계와 식물계만으로도 불가능함이 묘사될 뿐 아니라 각 생명계가 상호관계 속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된다. 결국에는 무기물질까지 함께 해야 궁극적인 생명현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연 생태계 내 생명체와 무기물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관계이며 모두가 함께 관련되어 온전할 때 전체 생명현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주제로 요약된다.

유기론적 다양성은 모성이자 자궁으로서 완전한 생태계, 자기복원력을 갖춘 생명체로서의 생태계, 유기체적 세계가 구현된 생태계로 나뉘어

68) 김정현, 「죽음은 삶의 목적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 2004. 139쪽.

논의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연생태계는 모성이자 자궁으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의 탄생과 성장을 주관하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이어 자연생태계가 유기체로서의 자기조절력을 갖춘 생명체이므로 조절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인간의 가치관 전환을 촉구한다. 끝에는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계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로서 유기론적 다양성이 현현되어 있다. 유기론적 다양성에서 응집된 주제는 자연 생태계 내 각 개체적 생명체는 각각 유기체일 뿐 아니라 그들이 모여 우주현상으로서의 유기체적 자연 상태가 이루어지니 각 개체적 생명체는 유기체로서의 다양성을 자각하고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환하는 생태계는 물을 매개로 순환하는 생물계, 섭식의 순환, 탄생과 사멸의 순환으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물, 즉 무기물이 생태계 내 각 개체의 생명현상을 이끌면서 모든 존재의 순환을 이끌고 있음이 주제로 도출된다. 또 다른 시에서는 식물과 동물, 인간이 섭식으로서 순환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제가 제시된다. 나아가 삶과 죽음이 순환함으로써 하나이며 서로 순환하면서 생명현상이 진행된다는 주제의 시도 함께 논의된다. 각 작품들의 순차적인 분석을 거쳐 도출되는 주제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서 개체의 독립적 순환과 동시에 개체끼리 상호 순환하면서 생성되고 소멸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을 비롯한 동물계, 식물계 그리고 무기물까지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상호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 즉 관계론적 평등성, 유기론적 다양성, 순환하는 생태계를 드러내는 작품들은 생태계 위기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구생태계의 생태적 본질을 탐색한 결과 형상화된 대안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13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생태계 전체를 유기체적이며 전일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그 관계의 대상인 모든 인간과 자연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동등하며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생태주의 문학작품에서 대안의 이미지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문학작품에서 생태계 위기의 해결방안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선은 문학이 지니는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해 생태계 파괴의 원인에 대한 대안을 깊이 천착해서 이미 지화했다.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겸허하고 비폭력적이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주제를 심층생태주의의 상상력을 통해서 묘사한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에서 이성선 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오히려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소통의 주제가 매우 적극적이고도 근원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미래사, 1991.
이성선, 『별레시인』, 고려원, 1994.
이성선, 『산시山詩』, 시와시학사, 1999.
이성선,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세계사, 2000.

논저

- 고영섭, 『연기와 자비의 생태학』, 연기사, 2001.
권두환, 「〈숫〉시인 이성선」, 『빈산이 젖고 있다』, 미래사, 1991.
김용민, 『생태문학』, 책세상, 2003.
김정현, 「죽음은 삶의 목적이다」, 『철학, 죽음을 말하다』, 2004.
김재홍, 「고요한 시대, 내성의 목소리들」, 『세계의 문학』, 1988.
남송우, 「생명시학을 위하여」, 『생명과 정신의 시학』, 도서출판 전망, 1996.
_____, 「생태문학론 혹은 환경문학의 현황과 과제」,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람사, 2001.
_____, 『생명시학 터담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문순홍,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송기용, 「이성선 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07.
송기환, 「큰 노래의 아름다움」, 『별레 시인』, 고려원, 1994.
송용구, 『녹색의 저항-독일의 생태시』, 들꽃, 2003.
송희복, 『생명문학과 존재의 심연』, 좋은날, 1998.
신동춘, 「디프 에콜로지의 이해」, 『시문학』, 시문학사, 1999.
오세영, 「사회와 시의 인식」,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3.4.
오탉번, 「별과 외로움의 시적 진실」, 『별까지 가면 된다』, 고려원, 1988.

- 이병금, 「이성선 시의 선적 사유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세경, 「이성선 시의 창작정신과 자아인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승훈, 「70년대의 한국시」,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9.
- ,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우봉, 「새로운 환경관」, 『인문학과 생태학』 경상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백의, 2001.
- 이진우, 『녹색사유와 에코토피아』, 문예출판사, 1998.
- 이혜원, 「산이 되어버린 사나이」, 『현대시학』, 현대시학사, 1994. 12.
-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초록생명의 길』, 시와사람사, 2001.
- 장영수, 「네 개의 시세계」, 『문예중앙』, 1985..
- 장영희, 「한국현대생태시와 영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장정렬, 『생태주의 시학』, 한국문화사, 2000.
- 전도현, 「자연 친화적 상상력과 구도의 정신」, 『물방울 우주』, 황금북, 2002.
- 정 민, 「이성선 시의 정신 세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순진, 「순환의 질서를 위하여」, 『녹색평론』, 1998. 7~8월호.
- 정정호, 「에코페미니즘」,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한신문화사, 1997.
- 정호웅, 「녹색사상과 생태학적 상상력」, 『문학사상』, 1995.12월호.
- 정효구, 「구도의 길, 성자의 길」,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세계사, 2000.
- 최동호, 「70년대 시와 서정성의 전개방향」, 『반시』, 문학세계사, 1982.
- , 「시적 풍요와 우리 시대의 나침반」, 『한국문학』, 1985.12.
- 최효선 역해, 『莊子』, 고려원, 1994.
- 홍성태, 「생태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이론의 전개」,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F. 카프라 지음·이성범, 구윤서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출판부, 1985.

F 카프라 지음, 이성범·구윤서 옮김,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범양출판부, 1985.

Devall, B, & Sessions, G, *Deep Ecology*(Salt Lake City: Peregrine Smith Books, 1985).

Gary Zukav, *The Dancing Wu Li Masters: An Overview of the New Physics*(New York: Bantam, 1980).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Frankfurt, 1979).

James E. Lovelock 저, 홍옥희 역, Gaia, 1978, 『가이아』, 범양사, 1990.

Naess, Arne & Rothengerg, David,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Time Luke 저, 문순홍 편저, 「근본생태론의 꿈」,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Warren, Karen J. *Ecological Feminism* London: Routledge, 1994.

<Abstract>

A Study of Deep Ecological Aspects in Lee Seong-seon's Poetry

Kim, Dong-Myeong

The topics about the birth, growth, and extinction of natural phenomena consistent in the works of Poet Lee Seong-seon allow for literary discussions to reflect the reality through communication of interactive relations between the interpreters living in today's world where natural environments are destroyed and the works. It is confirmed that the spirituality of nature in his poetry is in the same vein as relational equality, circulating ecosystem, and organic diversity, which are usually mentioned in nature discus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deep ecology.

The topic classified as relational equality moves in the direction that all creatures within the earth's ecosystem are connected each other toward the whole one. The common topics of his poems represented by relational equality between plants and animals or between inorganic matters and ecosystems insist that equal relationships should be first established between humans and other creatures in the ecosystem since the cause of ecosystem destruction derived from human-centered thinking.

his poems that show the organic diversity presents the diversity as the complexity of the earth's ecosystem. The topic evolving around organic diversity says that all the individual creatures in the earth's

ecosystem are their own organic matters and gather together to create a harmonious natural state as a cosmic phenomenon.

Finally, Then the common topic of his poems represented by circulating ecosystems tells that human and nature are the universal life community and in equal relationships, circulating, being born and extinct, dying and reviving. Thus the idea comes about that all the animals including humans, plants, and inorganic matters should respect one another as equal beings.

His works that reveal those three topics, namely relational equality, and organic diversity, circulating ecosystem, focus on the embodiment of solutions than causes of the destruction of ecosystems. They all pursue one common direction that the entire ecosystem is organic and whole as one and that all humans and nature are equal and deserve respect as individual beings.

Key Words : Deep Ecology, Relational equality, Organic diversity,
Circulating ecosystem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